



우리 지역의 지명 유래



“ 풍 기 리 ”

장항선 철도 넘어 온양여자 중·고등학교가 위치
온양온천 2동과 경계가 됨(2003)



풍기리라고 이름을 붙이게 된 것은 어느 가락한 효부 때문이라고 한다.
 풍기리에 대한 전설은 다음과 같다.
 백제 시대에 기득이와 풍순이라는 부부가 살고 있었다. 그들은 비록 가난에 허덕이었지만 의좋은 부부로 소문이 나 있었다. 그들에게는 늙은 아버지와 어머니가 살아계셨는데 이들에 대한 효도도 지극해서 늙은 부모들도 부족함이 없었다.
 늙은 아버지와 어머니는 물론 기득이와 풍순이까지도 행복감에 젖어 있었다.
 그 때 백제의 문주왕은 부왕인 개로왕이 고구려 군사들한테 참패하여 피살된 것을 복수하려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젊은이들은 모두 병정으로 징발하였다. 기득이도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되었다.
 기득이는 눈물이 핑 돌았다.
 결국 기득이는 집을 떠났다. 풍순이는 늙은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면서 남편이 돌아오기를 기다렸다. 그러나 것처럼 믿고 의지하던 남편이 죽어서 돌아왔다. 풍순이의 슬픔은 말할 수 없었다.
 풍순이는 마음을 단단히 먹고 시부모를 공경했다.
 그동안 몇 해는 남편이 벌어놓고 간 재산으로 그럭저럭 살아갈 수 있었지만 이제는 남은 것도 없는데다 일할 사람도 없으니 앞이 캄캄했다.
 게다가 몇 년간 흉년이 거듭 들어 죽을 먹기도 힘들었다. 그는 무엇보다도 늙은 시부모를 굶기는 것이 더 없이 가슴 아팠다.
 어느 날 밥을 얻지 못했다. 추운 방에서 자기만 돌아오

기를 기다리고 있을 시부모를 생각하니 앞이 캄캄했다. 그는 눈물을 흘리면서 돌아오다가 개가 토한 보리밥을 물에 씻어 시부모님께 드렸다. 그만큼 풍순이는 시부모님을 잘 공양하면서 살았다. 그 후 기득이와 풍순이의 이름 첫 자를 따서 합쳐 풍기리라고 불렀다고 전한다.
 현재 풍기리는 풍기동으로 변경되어 5통으로 분리됐다. 1통은 풍기리, 2통은 밤줄로 밤나무가 많다하여 붙여진 이름이다.
 3통은 선무니라고 하는데 옛날 마을 앞에 냇물이 흘러 선비들이 아산에서 온양까지 이 내를 이용하였다 하여 선비의 선을 따서 선문이라 하였다고 전해진다. 또한 풍기 북쪽에 옛날 성문이 있어 성문이가 변하여 선무니가 됐다고 한다. 4통은 1993년에 준공한 인정아파트가 4통이 되고 주은아파트가 5통이 된다.



▲최근 풍기리 사진